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裴 淑 姬 (慶尙大 人文學研究所)

- | | |
|--------------------|------------------|
| 문제의 제기 | Ⅲ. 제주도에 남아있는 이국적 |
| I 원나라의 對 탐라정책 | 요소들에 대한 검토 |
| Ⅱ. 원대 탐라로 이주한 중국인의 | 맺는말 |
| 유형 | |

I. 문제의 제기

고려와 원나라의 사료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 민간에서 전해오는 전설이나 유적지 곳곳에서도 몽골족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牧馬는 원나라가 阿幕을 설치한 데서 비롯되므로 牧馬場를 元屯馬라고 칭한다.¹⁾ 제주도의 목마가 원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원나라 때 중국인들이 탐라로 오게 된 것일까?

몽골의 약 100년간 지속되었던 제주도와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²⁾ 몽골과 탐라가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3-A00005]

1) 高炳五, 朴用厚共編, 『元大靜郡誌』 (博文出版社, 1968), p.80.

2) 金奉鉉, 『濟州島歷史志』 (日本, 僑文社, 1960), pp.125-143; Sang Ick, Yang, 「The Foreign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eju Island」 (『논문집』

습속이나 언어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밝힘으로서 두 지역을 비교하려는 연구³⁾가 시도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중 양국의 사료를 망라하여 탐라에 관한 기록을 가려내어 정리한 고창석의 『耽羅國史料集』과 중국에서 출판된 『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 등의 사료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⁴⁾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탐라지역이 원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⁵⁾

원 세조가 남송을 경락하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탐라에 주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쿠빌라이가 탐라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어떠한 이유로 원나라 때 중국인들이⁶⁾ 이주해와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들이 제주도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원나라와 관련한 자료 활용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원대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간과하였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원나라의 탐라에 대한 중시도는 관부의 설치와 관원의 임용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원나라는 세조 至元 10년(1273)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여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여 중간 중간에 고려에 환원된 경우도 있었지만, 혜종 至元 22년(1362) 耽羅만호부를 설치하기 까지 약 90여

제5집, 1973), pp.107-119; 김일우, 「고려 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한국사학보』15, 2003), pp.45-72.

3) 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 비교연구」(『탐라문화』20號, 1999), pp.1-16.

4) 고창석, 『耽羅國史料集』(신아문화사, 1995); 劉子敏等主編, 『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延邊大學出版社, 1996).

5) 고창석, 『濟州歷史研究』(도서출판 세림, 2007)중 제2장 麗·元과 耽羅와의 關契를 참조하기 바람; 민현구, 「고려와 원 및 탐라의 관계에 관한 검토」(『제주도』통권제108호, 2004); 김일우,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서귀포문화원, 2005) 중 VII. 고려 후기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를 참조하기 바람. 에르텐 바타르, 「제주도의 칭기스칸 후예들에 관하여」(『耽羅文化』20, 1999); 阿達, 「耽羅隸元考述」(『中國邊疆史研究』, 1997-1); 이개석, 「元朝의 高麗邊境 지배-耽羅總管府를 중심으로-」(2010전통문화강좌, 제주교육박물관)

6) 물론 몽골족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는 한인, 남인, 색목인도 있었을 것이므로 중국인이라 통칭하겠다. 한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을 몽골음으로 전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사료에 나오는 한자음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년간 관원을 파견하여 왔다. 탐라에 설치되어졌던 관부의 명칭의 변화와, 파견되어 온 다루가치와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원나라의 대 탐라정책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어, 원대에 몇 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던 중국인의 이주를 관원, 주둔군, 목인, 유배인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물론 관원이나 목인의 숫자가 주둔군이나 유배인에 비하면 많지 않았지만 탐라 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대에 단행된 여러 유형의 중국인의 이주로 육지인의 눈에 비친 제주도는 상당히 이국적이었으며, 제주도에 출현하였던 여러 성씨가 ‘大元’을 본관으로 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사료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 남아 있는 『호적중초』를 통해서 ‘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여러 성씨를 살펴보겠다.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통해 원나라의 탐라 통치에 대한 전모와 특징을 밝혀보고, 다양한 유형의 중국인의 이주와 그로 인한 영향 등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그 동안 막연하게 인식되던 몽골과 제주도 관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원나라의 對 탐라정책

삼별초의 항몽세력은 고려의 對蒙講和 결의 이후에도 몽골에 굴복을 거절하였다. 삼별초는 진도를 거점으로 대몽항쟁을 하다가 진도가 함락된 후 탐라로 거점을 옮겼다. 삼별초는 至元 10년(1273) 麗蒙연합군에게 평정되었고 원나라는 탐라를 직할지로 통치하여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고 진번군 1700명을 주둔시켰다.⁷⁾ 탐라국초토사의 주요 임무는 貢賦로 해마다 모시포 100필을 진상하는 것이었고⁸⁾, 이 때 탐라초토사에 임용된 사람은 失里伯이다.⁹⁾ 실리백의 조부는 怯古里禿로 칭기

7) 여원관계사연구팀, 『譯註元高麗紀事』(선인한국학연구원서, 2008), p.285.

8) 『元史』 권208(中華書局 標點本, 1977年) 外夷 一, 耽羅, p.4624.

즈 칸 때 서하를 공략하는데 공을 세웠다.¹⁰⁾ 아버지 莫刺合은 조부의 공적으로 은음을 받아 관직에 나갔다. 실리백은 至元 10년에 昭勇大將軍(正3品)으로 옮겨져 탐라국초토사에 임명되었다. 阿達는 실리백이 탐라국초토사에 임명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는데¹¹⁾ 쿠빌라이는 실리백과 같이 유능한 장수를 남송의 정복전에 투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리백은 칙지를 받들고 상도에 가서 황제를 알현하였는데, 고쳐서 萬戶를 管軍케 하여 襄陽 諸路의 신군을 통솔하게 하였다.¹²⁾ 마침 원나라가 남송을 멸망시키는 막바지로 접어든 시기였으므로 東征함에 세 갈래로 나누어 졌는데, 그 중 한 노선이 바로 獨松關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실리백은 승상 바얀(伯顏, Bayan)을 따라 渡江하여 獨松關을 격파하고 長興으로 내려가 湖州를 取하고 18년에 죽었다¹³⁾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쿠빌라이는 실리백에게 일본원정에 참여케 하였으나 해상에서 난을 당하였다¹⁴⁾고 되어 있다.

실리백이 탐라초토사로 오지 않았지만, 실리백의 아들이 탐라 다루가치로 오게 되는 塔刺赤이다. 塔刺赤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다루겠다. 탐라국초토사의 招討副使는 尹邦寶였고,¹⁵⁾ 지원 12년(1275)에 원나라는 탐라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를 두어 통치하였다. 다루가치는 주지하듯이 몽골과 원나라의 관명으로 몽골어로 darugaci이며 鎮守者の 음역으로 지방 군대와 관아의 최대 監治 장관이다. 몽골제국은 다

9) 『元史』 권133, 失里伯傳. 몽골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함에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기된다. 『續資治通鑑』에는 迪里巴, 『資治通鑑後編』에는 實里伯, 『新元史』에는 失裏伯이라 기록되어 있다.

10) 『西夏書事校證』 권39 (甘肅文化出版社, 1995), 夏天慶 12년(1205), p.463.

11) 阿達, 『耽羅隸元考述』 (『中國邊疆史研究』, 1997-1).

12) 『元史』 권133, 失里伯傳, p.3234.

13) 위의 책.

14) 『心史』 (齊魯書社, 四庫全書存目叢書) 卷下, 「大義略敘」, p.133.

15) 『元史』 世祖本紀, 至元 10년 6월 27일, p.150.

루가치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직위는 현지 관원보다 높았고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몽골 대칸과 귀족의 통치를 보장하였다. 몽골군과 몽골 탐마적군에는 다루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기타 각 족의 군대에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수부, 만호부, 천호부에 다루가치를 두어 군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직위는 원수, 만호, 천호와 비슷하여 가장 높은 경우는 정2품(대도나 상도 다루가치, 후에는 정 3품으로 강등)이고, 직위가 가장 낮은 경우는 路, 府의 治所에 속해 있는 다루가치인데 정8품이었다. 탐라의 경우는 從 4品(혹은 3品)이었던 것을 보면 원나라에서 비교적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탐라의 다루가치로 파견되어 온 첫 번째 인물은 遜攤인데 충렬왕 원년(至元12년, 1275) 6월 戊辰에 임명되었다.¹⁷⁾ 그러나 손탄이 탐라로 파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그 이듬해, 앞에서 거론하였던 실리백의 아들 塔刺赤이¹⁸⁾ 원나라에서 말 160 필을 가져와 방목하면서¹⁹⁾ 제주도와 말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쿠빌라이가 사전에 탐라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면 다루가치가 그렇게 많은 말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塔刺赤이 曲靖等 路宣慰使였다²⁰⁾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曲靖路는 至元 13년에 曲靖路總管府로 고쳐졌다가, 25년에 曲靖路가 승격되어 宣撫司로 되었다. 지원 28년에 곡정로선무사를 선위사, 管軍만호부

16) 『大元聖政國朝章典』(上)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8), 吏部 권 1, 典章 7, p.188.

17) 『元史』 권8, 「世祖本紀」, 至元 12년 6월 戊辰條, p.168.

18) 『元史本證』(續修四庫全書本) 권38, 證名, p.643. 세조 지원 18년의 塔兒赤은 지원 21년, 29년, 순제 원통원년의 塔刺赤과 같은 사람이다. 趙金銘, 「語音研究與對外漢語教學」(『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p.238, “兒化”性質新探에서도 塔兒赤이 塔刺赤임을 설명하고 있다. 方齡貴, 『元明戲曲中的蒙古語』(漢語大辭典出版社, 1991), pp.223-24.

19) 『高麗史』 권28, 忠烈王 丙子 二年 八月, 丁亥條.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의 塔羅赤이 馬, 牛, 駝, 驢, 羊을 首山坪 서남쪽에서 방목하였다[李元鎮鎔, 譯註 『耽羅志』(푸른역사, 2002), 古跡, p.141]는 기록이 있으며 馬頭浦(현 한림항)로 들어왔다고 한다.

20) 『元史』 권133, 失里伯傳, p.3234.

로 고쳤다.²¹⁾ 그러므로 塔刺赤이 탐라의 다루가치 임무를 마치고 曲靖等路宣慰使에 임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에 이어 탐라에 설치된 관부는 탐라(국군민)안무사이다. 원나라는 변강지역의 行省 아래에 宣慰司를 설치하여 행정과 군현간의 소통을 책임지게 하였는데, 鎮守와 征討를 중시하였으므로 군사기구의 성질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선위사 아래에 변원지역에는 招討, 按撫, 宣撫 등의 使를 두었다.²²⁾ 탐라의 경우는 耽羅國按撫司를 두었는데, 다루가치는 正3品の 軍民職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총관은 從3品の 民職이다. 그 밖에, 同知耽羅國軍民按撫司事는 正5品이다.²³⁾ 『탐라지』에는 耽羅國軍民按撫司府는 성 북쪽 해안에 있었다는 기록과 다루가치, 총관을 비롯한 관료의 구성이 나온다.²⁴⁾ 다루가치 밑에 總官, 總官副(부총관), 同知로 구성된 경우와 總官, 副判官(부판관), 知事, 提控, 知房, 令史가 있는데²⁵⁾ 총관에는 몽골족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그 이하 관직은 대부분 탐라인으로 충원되었다. 이 중에서 提控, 知房, 令史는 좀 생소한 용어이므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提控은 원대에 提控案牘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문의 문서를 주관하는 수령관이고²⁶⁾, 知房도 “문서를 처리하는 屬吏”²⁷⁾로 탐라인 夫, 高, 文氏가 담당하였다. 令史는 金代의 경우, 吏에 속하고 文書 案牘 등의 사무를 주

21) 『元史』 권15, 世祖本紀 12, 至元 25年 3月 戊子, p.310. 자세한 내용은 李治安 薛磊[『中國行政區劃通史(元代卷)』(復旦大學出版社, 2009)]의 제8장 雲南行省所轄路府州를 참조하기 바람.

22) 『元史』 권91, 百官志 7.

23) 『大元聖政國朝章典』(上), 吏部 권 1, 典章 7, p.219. 이 책에서는 耽羅國按撫司를 耽羅國軍民按撫司라 하였다.

24) 李元鎮鎔, 譯註 『耽羅志』(푸른역사, 2002), 古跡, pp.103-14.

25) 위의 책, p.174.

26) 제공안독은 원대 수령관명으로 路, 府, 上中州에 설치하였다. 아문의 문서를 주관하였으며 流外職에 속한다(陳高華·張帆·劉曉의 『元典章·戶部·祿廩』校釋을 참조하기 바람).

27) 傅正谷, 劉維俊, 『元散曲選析』(天津人民出版社, 1982), p.192. 현아문의 공사를 吏, 戶, 禮, 兵, 刑, 工 六房이 관리하였다. 知房은 각 房의 일을 관리하는 書辦.

관했는데 원대에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라의 다루가치 塔刺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원 14년(1277) 10월에 원나라로 갔다가 이듬 해 2월에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그 후에도 塔刺赤은 또 원나라로 갔다가 지원 19년(1282) 12월 15일에 원나라에서 돌아와 22일에 고려왕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말 2필을 바치면서 혼인을 청하였으므로 내시 鄭孚의 딸을 시집보냈다.²⁸⁾ 후에 또 원나라로 갔다가 충렬왕 9년 9월 乙丑에 원에서 돌아왔다.

위의 내용을 통해 塔刺赤이 탐라 다루가치로 있다가 6년이 지난 후에 고려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塔刺赤이 탐라에 머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으로 왕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塔刺赤은 탐라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탐라에서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서 탐라 다루가치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폐해를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塔刺赤은 탐라에 다루가치로 파견되어 올 때, 소, 말, 낙타, 당나귀, 양 등을 싣고 왔으므로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 塔刺赤의 감독하에 당시 탐라의 성주였던 高仁旦의 협조가 있어 전선의 건조가 이루어지고, 필요시에는 鐵匠으로 전함을 수리하게 하였다.²⁹⁾ 원나라는 泉州, 揚州, 隆州(南昌) 등지에서 “배 3천척을 만들게” 하였는데 탐라에서 목재를 공급케 하였으며³⁰⁾ 심지어 탐라에서 새로 만든 배를 洪茶丘에게 맡겨 출정하도록 하였다³¹⁾는 것을 보면 탐라에서도 군선의 제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탐라에 머물고 있던 몽골군대가 원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즉, 至元 21년(충렬왕 10, 1284)에 “頭輦哥 국왕이 고려에 수자리 나갈 때 旺速 등이 거느린 군사 4백 명을 징발하여 왔는데, 지금 두런가는 이미 돌아왔으나³²⁾ 군사는 탐라에 머물면서 그 처자와

28) 『高麗史』 권29, 충렬왕 9년 9월 임신조.

29) 『高麗史』 권29, 충렬왕 5년 8월 계유조.

30) 『元史』 권11, 世祖本紀 8, p.224.

31) 『元史』 권10, 世祖本紀 7, p.230.

떨어진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마땅히 다른 병사로 하여금 庚戌개하십시요”³³⁾ 라고 건의하였다. 바얀 등이 의논하기를 “고려 군사 1천명으로 탐라를 지키게 하고 그 곳에 머물러 수자리 사는 4백 명은 돌아오게 하십시요” 라고 하니 이에 따랐다.³⁴⁾ 2년 후인 至元 23년(충렬왕 12, 1286) 5월 19일에 조칙을 내려 탐라에 있었던 4백 명의 병사를 돌아오게 하였다. 이들은 삼별초의 난을 진압할 때, 원나라에서 왔던 군인들로 처음에는 단기간 내에 귀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10여 년을 탐라에서 지냈으므로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나 풍습이 맞지 않아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다루가치로 있던 塔刺赤이 이들의 귀국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탐라의 다루가치는 그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전라도 등의 지역에서 田獵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조칙을 내려³⁵⁾ 경고를 하였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나주 해남 지방에 자의로 站赤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측에서는 탐라에 와 있던 다루가치를 위해 고려 正殿에서 연회를 베푸는³⁶⁾ 등 신경을 썼다. 원나라는 閼刺解와 蒙古不花를 보내와서 탐라 防守軍의 糧草糧歲支의 수를 묻는³⁷⁾ 등 주둔군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홀도탐아가 탐라 按撫使로 있을 때 원 중서성에서 돌아와 靑瓷瓮, 盆, 瓶 등 고려의 청자 大器를 구하고자 애썼고 원 조정에서는 고려의 청자를 貢品으로 바치게 하여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로 실어갔는데 그

32) 頭輦哥 국왕은 至元 6년에 고려의 권신 林衍이 반기를 들자 冬 11월에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討平하였던 인물이다(『元史』 권154, 洪福源傳, p.3629). 頭輦哥의 구체적인 사적에 대해서는 葉新民的 「頭輦哥事迹考略」(『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기, 1992)을 참고하기 바람.

33) 『元史』 권13, 世祖本紀 10, p.268.

34) 위와 같음.

35) 『元史』 권11, 世祖本紀 8, 至元 18년 5월 壬戌條, p.231.

36) 『高麗史』 권30, 충렬왕 11년 2월 戊申條.

37) 『高麗史』 권29, 충렬왕 8년 정월.

수요를 만족시켰다³⁸⁾고 한다. 홀도탐아가 탐라에 있으면서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알았을 것이고 이에 진공품으로 할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지원 21년(1284) 11월에 塔刺兒가 탐라 다루가치에 임명되었다.⁴⁰⁾ 塔刺兒가 탐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는데 원나라에서 지원 26년 3월에 右丞 阿撒⁴¹⁾를 보내와 탐라 다루가치의 죄를 조사하게 하였고 당시 다루가치가 塔刺兒인 것을 보면 지원 27년에 交趾로 유배 간 다루가치임을 알 수 있다. 塔刺兒가 탐라 다루가치로 재임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6년이다. 원 조정에서 다루가치의 죄를 조사하러 온 右丞 阿撒로 하여금 다루가치 직책을 대신하게 하였다.⁴²⁾ 지원 12년(1275) 다루가치가 파견되고 부터 충렬왕 19년에 우승 阿撒이 탐라 다루가치를 맡기 까지 원나라에서는 약 20여 년간 다루가치를 직접 탐라에 보내 통치하였다.

지원 31년(1294) 쿠빌라이의 사망으로 그 동안의 팽창정책도 차츰 정리되어 東征을 중단함에 따라 원나라와 탐라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당시 탐라인 曲怯大, 蒙古大, 塔思拔都 등이 원나라에 가서 명마 4백 필을 바치고 또한 충렬왕이 탐라의 환속 등 四事를 청하니 원 성종은 고려의 요청에 따라 탐라를 고려에 돌려주었다.(1294년) 충렬왕은 탐라가 환속된 것을 기뻐하여 성주인 高仁杓⁴³⁾과 탐라 왕자

38) 『高麗史』 권30, 충렬왕 15년 8월 무오조.

39) (元) 王元恭修 (元) 王厚孫 徐亮纂, 『至正四明續志』 (清 徐時東校刊)

40) 『高麗史』 권30, 충렬왕 13년 11월.

41) 이개석 교수는 우승 阿撒이 『元史』 권17 세조 지원 29년 6월 병자 기사 “仍遣使責遼陽省臣阿散”의 阿散을 가리킨 것이라고 앞에 인용한 강연집 p.62 주 50)에서 설명하였다. 阿達도 앞의 논문에서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p.30). 그러나 위의 阿散이 우승을 지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동명이인인 듯한 阿散(?-1320년)은 인종 延祐원년(1314)에 중서우승이 된 적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朱紹侯 主編, 『中國歷代宰相傳略』 (大象出版社, 1997), p.1257].

42) 『高麗史』 권30, 충렬왕 19년 9월 을축조.

43) 『濟州高氏大同譜追錄』 (譜典出版社, 1986) 권1, 제3편, 先祖事續編. 高仁杓은 仁朝 또는 何祖라고 한다. 증시조 서주공 諱 末老의 十세손이고 성주공 諱 福壽의 큰 아들로서 성주작을 물려받았다.

文昌裕에게 紅鞵, 牙笏, 帽盖, 靴阿를 각 하나씩 하사하였다. 그러나 원나라는 말을 바치는 일은 계속하라고 명하였다.⁴⁴⁾ 이듬해 阿撒이 右丞의 신분으로 탐라 다루가치를 맡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원 조정에서는 織金衣 두 벌을 하사해 주었다.⁴⁵⁾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원나라에서 탐라를 고려에 돌려주었으나 목축만큼은 계속 관여하였으므로 成宗 元貞 2년(1296)에 斷事官 木兀赤을 탐라로 보내와 목축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⁴⁶⁾ 원나라는 중서성, 행중서성, 추밀원, 행추밀원, 기타 중앙기구에도 단사관을 두었으므로 木兀赤이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없지만 목축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宣徽院 소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목축과 관련된 분쟁 등의 제 문제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元 成宗 大德 4년(1300)에 원나라는 다시 탐라에 耽羅總官府를 설치하였으며, 이듬 해 耽羅軍民萬戶府로 고쳤다.⁴⁷⁾ 『元史』에는 탐라군민총관부로 되어 있으며 정동행성에 속하였다.⁴⁸⁾ 탐라총관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路總管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路總管府의 다루가치와 총관을 장관이라고 칭하였는데 다루가치는 監治官으로 관부의 印信을 관장하고 총관보다 지위가 높았다. 총관은 “判署”를 관장하고 부역과 詞訟의 일체 정무를 처리하는데 “管民長官”이라고도 칭해진다. 同知, 治中, 判官, 推官은 모두 佐貳官으로, 총관이 정무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다.⁴⁹⁾ 쿠빌라이가 路總管府의 관원을 임용함에 각 로에 몽골인, 색목인, 漢人을 병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至元 2년에 조서를 내려 “몽골인으로 각 로의 다루가치를 삼고, 한인으로 총관에 충당하며 회

44) 『高麗史』 권31, 충렬왕 20년 11월 경술조.

45) 『高麗史』 권31, 충렬왕 20년 11월 을묘조.

46) 『高麗史』 권31, 충렬왕 22년 2월 을축조.

47) 『高麗史』 권31, 충렬왕 27년 3월 계묘조.

48) 『元史』 권63, 地理志 6, pp.1562-63에는 征東等處行中書省에 領府 두 곳(심양 등로고려군민총관부, 탐라군민총관부) 司 한 곳(정동초토사), 勸課使 다섯 곳(경상주도, 동계교주도, 전나주도, 충청주도, 서해도)이 있다.

49) 張金鈺, 「元代路總管府的建立及其制度」(『中國史研究』, 2001년 第3期), p.150.

회인으로 동지에 충당하는 것을 定制로 삼게 하라고”⁵⁰⁾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원나라는 성종 대덕 5년(1301)에 군민만호부를 설치한 이후, 至大 원년(1308) 제주에 다루가치를 파견해 왔다.⁵¹⁾ 그러다가 順帝 元統元年(1333)에 耽羅國 軍民按撫司 다루가치로 탐라적의 아들인 奴列你他를 파견하고, 三珠虎符를 하사해 주었다.⁵²⁾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탐라에서 다루가치를 지낸 인물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던 塔刺赤은 실리백의 아들이고, 노열니타는 塔刺赤의 아들이라는 것이며⁵³⁾ 노열니타 역시 塔刺赤과 같은 耽羅國軍民按撫司의 다루가치를 지냈으므로 정3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리백이 탐라국초토사로 임용되었지만 탐라로 오지 않았으나 아들 塔刺赤과 손자 노열니타는 탐라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리백의 조부가 칭기즈칸과 함께 서하지역을 공략하였던 맹장이었고, 실리백 자신도 쿠빌라이에게 중용되어 남송원정에 참여하였다. 실리백의 아들과 손자가 탐라지역에 다루가치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원나라의 탐라지역에 대한 중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탐라국군민안무사의 경우 파견되어온 다루가치는 정3품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탐라인이 담당하였던 총관도 종3품이었고, 按撫司事에 임명되었던 사람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정5품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원나라의 탐라통치는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탐라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통치형태였다.

Ⅲ. 탐라로 이주한 중국인의 유형

50) 『元史』 권6, 世祖本紀 3, 至元 2년 2월 갑자조, p.106.

51) 『高麗史』 권32, 충렬왕 34년 3월 임술조.

52) 『元史』 권38, 順帝本紀 1, 元統 元年 12월 庚申條, p.819.

53) 앞의 이개석 교수의 강연회 자료집 p.67에서 언급하였다.

1. 관원

제1장에서 살펴본 원나라가 탐라에 설치한 관부와 파견되어 온 관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원대 탐라에 설치된 관부명칭과 파견된 관원들

년 대	관 부	관직과 관원명	비 고	자료출처
世祖 至元 10년(1273)	耽羅國招討 司	昭勇大將軍(正3品) 초토사 失里伯 초토부사 尹邦寶	오지 않음 고려인?	譯註元高麗紀 事
지 원 12 년 (1275)	軍民都達魯 花赤總管府	다루가치 孫攤	실제로 탐 라에 임직 했는지 불 명확	元史 권63, 지리지6
지 원 13 년 (1276) 8월		다루가치 塔刺赤(來)	失里伯 의 아들	高麗史 권28, 충렬왕세가
지 원 21 년 (1284)	耽羅 (國軍 民)按撫司	다루가치 塔刺赤 按撫使 忽都塔兒		元史 권 세조본기 10 元史 권 208, 탐라전
지 원 24 년 (1287)11월		다루가치 塔刺兒(來)		『高麗史』 권30, 충 렬왕13년
지 원 29 년 (1292) 3월		우승 阿撒(來)	다루가치 의 문책을 위 해 올	高麗史 권30, 충렬왕19년
지 원 30 년 (1293) 9월		다루가치 塔刺兒(去) 다루가치 阿撒(임명)	交趾로 유 배	
成宗 元貞2 년(1296)		斷事官 木兀赤	목 축 일 을 관 리 하 기 위해 올	高麗史 권 31, 충렬왕22
成宗 大德4 년(1300)	탐라총관부			高麗史 권31, 충렬왕 27년
成宗 大德5 년(1301)	탐라군민만 호부(탐라군 민총관부)	만호 李莊 ⁵⁴⁾	정동행성소 속 泰安李氏 의 시조	元史 권 63, 지리지6
至大 원년		다루가치 ?		

(1308)				
불명		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 理上護軍, 다루가치 朴 景亮 ⁵⁵⁾	고려인	
惠宗 元統 원년(1333) 12월	탐라국 군민안무사	다루가치 奴列你他(來)	塔刺赤 의 아들	元史 권 38, 순제본기
惠宗 至正 22년(1362)	탐라만호부	(副樞) 文阿旦不花가 整治事에 임명됨		탐라지 권1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루가치가 탐라로 파견되어 올 때의 정확한 년 월은 알 수 있지만, 塔刺赤처럼 유배 간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 원나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탐라에서 생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의 다루가치였던 塔刺赤은 탐라국(군민)안무사가 설치되고 나서도 계속 다루가치로 있었으며, 아들 노열니타도 혜종 원통원년에 동일한 명칭의 관부인 탐라국 군민안무사의 다루가치에 임용되었다.(정3품)

塔刺赤이 탐라 다루가치로 재임한 시기에 제1, 2차 일본원정이 단행되었으며 3차 일본원정이 후에 단행되지 않았어도 준비했으므로 塔刺赤이 장기간 다루가치로 있으면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 같다. 또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종 대덕 4년에 설치된 탐라총관부는 이듬해 탐라군민만호부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元史』에는 탐라군민총관부로 되어 있고 정동행성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인 박경량이 다루가치에 임명되는 예도 있었다. 또한 탐라가 고려에 귀속된 시기에도 다루가치나 斷事官이 派遣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주둔군

54) 尹昌鉉, 『朝鮮氏族統譜』(漢城圖書株式會社, 大正 13年).

55) 島田翰의 “刻宋本寒山寺詩集序”(杜浩祥, 『中國佛寺史志彙刊』第1輯, 第43冊 140·141·142·143 寒山寺志, 明文書局, 1980, p.209)에 “嘉義大夫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理上護軍朴景亮刊行”이라 되어 있다.

지원 10년 원나라는 탐라를 직할지로 통치하여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고 진변군 1700명을 주둔시켰다.⁵⁶⁾ 진변군중 원나라 군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즉, 頭釐哥 대왕이 고려에 수자리 나갈 때 旺速 등이 거느린 군사 4백 명을 징발하여 갔는데 頭釐哥 대왕은 이미 돌아왔는데 군사들은 탐라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당시 탐라의 다루가치였던 탐라적의 주선으로 4백 명은 원나라로 돌아오고 그 대신 고려의 군사 1천명으로 탐라를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일본원정에 실패한 후, 지원 19년(1282)에 원나라는 蒙漢軍 1400명을 보내 탐라를 지키게 하였는데⁵⁷⁾ 일본원정이 끝나고 나서 탐라지역에 방비가 증가된 것은 당시 탐라지역은 일본과 중국 간의 왕래에서 거점 지역이었으므로 만약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경우 먼저 탐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도 거론하였지만 원나라의 관부를 비롯한 목마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해 올 것에 대한 방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戍兵에 필요한 전구나 주둔군의 양식은 원나라가 부담했던 것은 아니고 고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였다.⁵⁸⁾

원나라는 지원 20년(1283)에 右丞 闇梨帖木兒에게 명하여 萬戶 35명, 몽골군으로 舟師에 익숙한 사람 2천명, 探馬赤 만명, 水戰에 익숙한 사람 5백명으로 일본을 정벌하라고 하여⁵⁹⁾ 이듬해 闇梨帖木兒가 군대를 거느리고 제주로 왔다⁶⁰⁾고 하는 기록이 있다. 闇梨帖木兒가 언제 원나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元史』에 의하면 요양지역의 말 6천 필 중에서 살찐 말을 택하여 闇梨帖木兒의 군대에 주었다는 기록으로 봐서⁶¹⁾ 이 말 중 일부도 제주로 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원 세조는 차후의 일본원정을 위한 전초 기지로 탐라를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으로 제3차 일본원정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나라는

56) 여원관계사연구팀, 『譯註元高麗紀事』(선인한국학연구총서, 2008), p.285.

57) 『高麗史』 29권, 충렬왕 8년 2월 계사조.

58) 『高麗史』 29권, 충렬왕 8년 정월 을해조.

59) 『元史』 권12, 세조본기 9, 세조20년 춘정월 壬申條, p.250.

60) 『耽羅紀年』 충렬왕 10년(1284) 夏4月, p.18.

61) 『元史』 권16, 세조 13, 세조27년 11월 丙寅條, p.342.

고려의 金州, 合浦, 고성, 나주의 연해지역이나 중국의 경원, 상해, 淸浦에 만호부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海防에 주력하였다. 주둔군인은 원대 탐라로 온 몽골인중 숫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목인(牧人)

탐라로 오게 된 몽골인 중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하치였다. 塔刺赤이 탐라로 오고 나서 2년 후인 1278년 哈赤의 거주구역이며 관할 단위인 東西의 아이막(ayimaq, 愛幕, 제주에서는 阿幕이라 함)⁶²⁾을 설치했으며 제주도에서 목마장을 元屯馬라고 칭했다.⁶³⁾ 동아이막은 성산을 ‘수산’에 두었고, 서아이막은 한경면 遮歸(현 고산리)에 두어 후에 동서 도현 설치의 기초가 되었다.

牧人을 哈赤, 哈刺赤라고 하는데⁶⁴⁾ 兀刺赤이라고도 하며 馬夫, 驛夫라는 뜻이며 후에는 黑乳를 양조하는 사람이라는 파생의를 띠게 되었다.⁶⁵⁾ 탐라의 문헌에서는 목인을 哈赤이라 하고 하치라고 불리워졌다. 탐라에 다루가치가 파견해 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 등을 방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⁶⁶⁾ 탐라의 목축업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62) 아이막은 “부대”, “대오”, “封地采邑”이라는 뜻으로 자세한 내용은 李治安의 책(『元代分封制度研究(增訂本)』, 中華書局, 2007)을 참조하라.

63) 高炳五, 朴用厚共編, 『元大靜郡誌』(博文出版社, 1968), p.80. 고창석은 군마조달등 군사적인 필요성에서 제주도 목장이 중시되었다고 설명하였다.(전게서, 2007년, p.92)

64) 『元史』 권100, 兵志 3. “馬之群. 或千百. 或三五十…牧人曰哈赤, 哈刺赤., 有千戶, 百戶, 父子相承任事”, pp.2553-4.

65) 謝咏梅, 「蒙元時期的哈刺赤與兀刺赤」(『南開學報』, 2001年第3期), p.58에서 “兀刺赤 ula’aci와 哈刺赤 hala’aci 두 단어는 몽골어 詞首 h 輔音의 零聲母化가 가져온 동일 語詞의 같지 않은 漢字音을 쓰는 방식이다.”고 해석하였다. 哈刺赤의 “馬夫”의 본의는 홀시되거나 掩蓋되고 “黑”의 含意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한다.

66) 陳祝三, 「蒙元與濟州馬」(『中韓關係史國際研討會論文集』, 民國 72年), pp.127-139.

원나라의 목지는 광활하여 동으로는 耽羅를 넘고, 북쪽으로 火里禿麻를 지나고, 서쪽으로는 甘肅에 이르고, 남쪽은 雲南에 이르기까지 모두 14개가 있고, 上都, 大都로부터 玉你伯牙, 折連怯呆兒에 이르기까지⁶⁷⁾ 방대한 목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목지에서 사육하는 官馬는 太僕寺에서 統領하는데, 말의 左股에 印烙하는 것을 大印子馬라고 한다. 목인은 千戶, 百戶가 있으며 父子가 相承하며 매년 9월, 10월에 태복사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閱視한다.⁶⁸⁾ 탐라에서는 태복시의 관마는 물론이고 宣徽院, 中政院, 資政院의 말도 사육하였다. 탐라지역이 원나라의 목지로 이용됨에 따라 말과 관련된 몽골어가 많이 보이는데, 앞에서 阿幕이나 哈赤은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악타치’(agtachi)는 ‘거세마 감시인’이란 뜻으로 ‘목마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른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테우리’라고 부르는데 몽골어에서 차용한 말이다.⁶⁹⁾ 굴레([草羈], morto 바굴레)를 『탐라지』에서는 祿大(고삐)라고 한다.⁷⁰⁾

탐라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말만 사육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도 방목하였음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료는 중요하다. 泰定 원년(1323)에 太僕卿 渾丹과 寺丞 搭海가 “탐라에서 소 83마리를 이곳으로 가져왔는데 不伏水土하니 청컨대 하치에게 付하여 3세의 乳牛(젖소)로 變換케 하고 印烙하여 入宮할 것을 청하자”,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였다.”⁷¹⁾ 원나라의 황실목장에서 사육하였던 牛馬가 어느 정도 수송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탐라의 모피, 소고기, 肉脯, 鞍具, 酥油 등이 지속적으로 진공되었으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다.

4. 유배인

67) 『元史』 권100, 兵志 48, 馬政, p.2553.

68) 『續文獻通考』 권165, 兵考, 馬政, 元, p.279.

69) 최기호, 「몽골어와 한국어의 기초어휘 연구」(『인문과학연구』제5호, 1996), pp.93-94.

70) 譯註 『耽羅志』, 제주, 풍속, “제주 지방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 p.24.

71) 『大元馬政記』(文殿閣書莊, 1937), p.2.

世祖 至元 12년(1275)부터 至元 14년(1277) 까지 원나라에서 상당수의 도적이거나 죄수들을 탐라로 유배시켰다. 『元章典』의 軍民職에 耽羅國軍民安撫司의 司獄이 보이는데 從8品이다.⁷²⁾ 司獄은 廉訪使 계통으로 원대 流罪를 판결하였다. 『元史』형법지에는 원나라의 유배지로 遼陽, 湖廣, 迤北을 거론하고 고려, 대청도, 탐라가 유배지라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고려나⁷³⁾ 대청도⁷⁴⁾로 유배 온 사실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면 원나라의 또 다른 유배지로서 탐라를 살펴보겠다. 至元12년 夏4월부터 至元14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적이거나 죄수 173명을 보내왔다. 구체적인 기록은 ① 至元12년(1275) 夏4월, “원나라에서 盜賊 100여명을 탐라에 유배 보냈다.”⁷⁵⁾ ② 至元14년(1277) 5월, “원나라에서 죄인 33명을 탐라에 유배 보냈다.”⁷⁶⁾ ③ 至元14년(1277) 8월, “죄인 40명을 탐라에 유배 보냈다.”⁷⁷⁾는 것이다. 원 세조 통치 초기의 집중적인 이주정책은 이들을 일본원정에 동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원나라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고려에서도 방관만하고 있지 않았다. 고려왕은 여러 차례 원나라 중서성에 상서를 올려 “小邦에 諸島가 비록 많으나 모두 육지와 멀지 않습니다. 上司에서 보낸 죄인을 이미 安置하기 어렵습니다. …… 원나라에서 탐라에 유배 보낸 죄수들은 청컨대 이전처럼 官軍으로 하여금 監守게 하십시오.” 라고 청하였다. 秋7월에 장군 朴義를 원나라에 보내어 교섭하게 하였고⁷⁸⁾ 협의가 되어서인지 한 동안 중단되었다.

72) 『大元聖政國朝章典』(上), 吏部 권 1, 典章 7, p.219.

73) 馮修青, 「蒙元帝國在高麗的流放地」(『內蒙古社會科學』, 1992年第3期); 김난옥, 「원나라 사람의 고려 유배와 조정의 대응」(『韓國學報』 31, 2005).

74) 권오중, 「大靑島에 온 元의 流配人」(『人文研究』 20-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75)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4월.

76) 『高麗史』 권28, 충렬왕 3년 5월.

77) 『高麗史』 권28, 충렬왕 3년 8월.

78) 『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8월.

延祐 4년(충숙왕 4, 1317) 윤 정월 4일 魏王 阿木哥를 탐라에 유배하였다가 다시 대청도로 옮기게 하였다.⁷⁹⁾ 아목가는 眞金の 둘째 아들 答刺麻八刺의 장자이고 武宗, 仁宗의 형이다. 延祐 5년에 魏王 아목가 왕부의 司馬曹, 脫不台 등이 모반한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한 것을 보면⁸⁰⁾ 사전에 혐의가 있어 유배된 것 같다. 한편, 고려에서는 위왕 아목가가 유배되어 왔긴 하지만 위문하고 접대하자 원나라는 이부상서 卜顔과 비체치(必闇赤, bichechi) 賁驢를 보내와서 문책하였다.⁸¹⁾ 위왕 아목가는 6년 후인 충숙왕 10년에 유배지에서 소환되었으며⁸²⁾ 원나라로 돌아가고 나서 고려의 왕이 위왕 아목가의 딸인 금동공주와 결혼하였다.⁸³⁾ 이를 통해서 보면 아목가는 고려에 유배와 있으면서 고려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나라로 소환되고 나서 고려왕과 혼인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魏王 아목가에 이어 탐라로 유배 온 관원은 羅源이다.⁸⁴⁾ 至大 4년(1311) 加徽政院使 羅源이 大司徒가 되었는데⁸⁵⁾ 그 후 십 여 년이 경과한 뒤인 至治 2년(충숙왕 9, 1322) 정월 15일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羅源이 탐라에 유배되었다. 나월에 이어 탐라로 유배 온 사람은 孛蘭奚 大王이다. 孛蘭奚 大王은 탐라로 유배오기 전에 이미 한번 유배되어졌던 인물이다. 孛蘭奚 大王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사람을 죽여 사형에 처함에 마땅하나 국족의 신분이라는 배려로 형량을 줄여 유배를 보냈다.⁸⁶⁾ 그로부터 약 30여년이 흐른 후에 탐라로 유배되었는데

79) 『高麗史』 권34, 충숙왕 4년 윤 정월.

80) 『元史』 권26, 仁宗本紀 3, 인종 5년 6월 을사조, p.584.

81) 『高麗史』 권34, 충숙왕 5년 추7월 신유조.

82) 『高麗史節要』 권24, 충숙왕 10년 동 10월.

83) 『高麗史節要』 권24, 충숙왕 11년, “八月王娶魏王阿木哥女金童公主.”

84)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는 新源으로 기재되어 있다.

85) 『元史』 권24, 仁宗本紀 1, 至大4년 11월 무술조, p.548.

86) 『元史』 권23, 武宗本紀 2, 무종2년 11월 병오조, p.519. 武宗 2년(1309) 11월 丙午에 諸王 孛蘭奚大王이 私怨으로 사람을 죽여 사형에 처함에 마땅하다. 太宗正 也可扎魯忽赤이 의논하기를 孛蘭奚은 국족으로 杖하여 北鄙에 유배 보내 중군시키기를 청한다고 하니 이에 따랐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⁸⁷⁾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기에 탐라로 유배되어졌던 인물이 도적이거나 죄수였는데 후에는 魏王 아목가, 徽政院使 羅源, 孛蘭奚 大王으로 상당히 높은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제주도에 남아있는 이국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의 말소리와 여러 가지 풍속이 한반도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형상은 제주목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환박물』을 찬술하였는데⁸⁸⁾, “사투리는 알아듣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문자는 섞어서 써서 중국의 말과 매우 유사하다. 보통 때 묻고 답하는 많은 말이 노걸대⁸⁹⁾와 같다. 역관이 말하기를, 소모는 소리에 이르러서는 더욱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귀양 온 申長齡도 譯官의 말을 인용하여 “이 섬의 말소리는 중화와 흡사하여 마소를 모는 소리 같은 것은 더욱 분별하지 못하다. 대개 風氣가 中華와 다르지 않아 그런 것인가? 일찍이 원나라에 점거되어 여기에 官을 두었기 때문에 중화와 서로 섞여 그런 것인가?”⁹⁰⁾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육지 사람으로 제주지역에서 느낀 이국적인 유풍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다.

탐라에 설치하였던 원대 다루가치의 유적지를 찾는 것도 풍토지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일이었지만 쉽지 않았다.⁹¹⁾ 심지어 과거시험의 마

87) 『高麗史』 권36, 忠惠王後元年 2월 병술조.

88) 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89) 『노걸대』는 고려후기에 중국을 여행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통문관 등에서 漢語 교재로 사용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광의 책[『原本 老乞大』 (김영사, 2004)]을 참조하라.

90) 金尙憲著, 洪琦杓譯註, 『南槎錄譯註(上)』 권1 (제주문화원, 2008)(전자책).

지막 단계인 殿試에서 정조는 제주도의 유생들에게 “塔刺赤이 원나라 사신으로 올 때 소, 말, 낙타, 당나귀, 양 등을 싣고 와서 수산평에서 길렀다고 하는데 지금도 낙타와 양의 종자가 있느냐? 다루가치부(탐라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는 어떻게 먼 곳에 있는 중국에서 관할하였으며 군민안무부(군민안무사)는 어떻게 하여 고려(탐라)에 두게 되었는지 그 지역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⁹²⁾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제주 유생의 답안도 남아 있는데 “낙타와 양은 지금은 없고, 어떻게 멀리 중국에서 다루가치부를 관할하였는지는 상세하지 않다”고 소략하게 대답하였다.⁹³⁾ 그도 그럴 것이 이미 500여 년이 지난 조선시대에 낙타와 양은 제주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제주도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

제주도에서 한반도와 다른 이국적인 풍속을 찾으려는 노력, 특히 몽골과의 공통점을 밝히거나⁹⁴⁾ 나아가 원(몽골인)과의 혼혈을 다루었다.⁹⁵⁾ 특히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趙, 李,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의 10개가 있고,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梁, 安, 姜, 對가 있다⁹⁶⁾는 기록이 남아 있다. 『東史綱目』에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데, “원나라 때 留鎮, 牧馬의 일로 원

91) 『阮堂全集』 제10권, 別毛羅伯之任(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데이터베이스).

92) 『弘齋全書』 제51권, 策問 4, 耽羅, 제주 세 고을 유생들의 試取, 갑인년(1794)(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데이터베이스).

93) 『耽羅賓興錄』(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참조). 탐라빈흥록은 1794년(정조 18년)에 제주도에서 시행한 문무 시험의 시행과정과 합격자 명단, 科文이 실려 있다.

94) 宋錫範, 『濟州道古代文化の謎』, 成甲書房, p.15. 이국적인 제주도의 풍속에서 “몽고와의 공통점”을 저자는 ①모자 의복 신발 등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② 목마가 성하고 말을 잘 부리는 것 ③ 馬具 ④ 마분을 연료로 사용하는 풍습 ⑤ 모피는 몽고 모자의 형태 ⑥ 들에 돌을 쌓아 놓은 것은 몽고의 오보와 거의 같음 ⑦ 牛馬犬의 귀를 자르는 풍습 ⑧ 濟犬으로 수렵하는 것 ⑨ 요람도 몽고풍 ⑩ 바람으로 選穀하는 방법 ⑪ 언어의 공통점을 들고 있다.

95) 金奉鉉編, 『濟州道流人傳 -李朝の政爭と配流された政客を中心に-』(國會刊行會, 昭和56年 9월), pp.319-321, 원(몽고)인과의 혼혈.

9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濟州牧 (민족문화추진회, 1981), p.95.

나라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거주한 자가 매우 많았고, 충렬왕 때에는 원에서 죄인 40명을 이곳에 유배하였다. 그래서 제주에는 원나라 자손이 많다.”⁹⁷⁾ “지금 趙, 李,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씨들의 호적이 원으로 본관을 삼는 것이 이것이다. 명 초기에 운남을 평정하고 양왕의 가족을 제주로 이주시켰는데 지금의 元, 梁, 安, 姜, 對씨들의 호적이 운남을 본관으로 삼은 것이 이것이다.”⁹⁸⁾라고 한 것에서 본고에서 살펴볼 ‘대원’⁹⁹⁾은 몽골족을 포함한 다양한 종족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성씨의 역사와 본관을 살펴보면 많이 활용되는 『朝鮮氏族統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제주도의 성씨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泰安李氏始祖莊은 원나라 때 탐라군민만호를 제수받았다¹⁰⁰⁾는 것에서 유일하게 시조를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시조를 알 수 없고 貫鄉만 있는 경우의 ‘元投化人’, ‘大元’, ‘雲南’으로 나눌 수 있다. ‘雲南’의 경우는 별도로 다룰 계획이므로¹⁰¹⁾ 우선 ‘元投化人’과 ‘大元’을 살펴보면 元 投化人에는 宋氏, 姜氏, 張氏, 周氏, 秦氏, 趙氏, 鄭氏, 肖氏, 石氏가 있고 ‘大元’에는 龐氏, 俞氏, 秦氏, 金氏가 있다.¹⁰²⁾ 물론 『朝鮮氏族統譜』의 내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알 수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東史綱目』에서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元投化人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호적중초』에는 元投化人은 찾아볼 수 없고 ‘대원’을 본관으로 한 성씨가 확인된다. 앞의 10가지 성씨 외에도 『호적중초』에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佐氏와 徐氏가 더 있음도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씨가 姜氏인 것은 ‘대

97) (국역) 『東史綱目』 VIII, 제15하 (민족문화추진회, 1979), pp.126-7.

98) 위의 책.

99) 김호동, 「몽골제국과 ‘대원’」 (『역사학보』 제192집, 2006), pp.221-51. ‘대원(大元)’은 중국의 몽골인 정권인 ‘원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대몽골 울루스’의 한자식 명칭이라 해석하였다.

100) 尹昌鉉, 『朝鮮氏族統譜』 (漢城圖書株式會社, 大正 13年).

101) 배숙희, 『元代 雲南과 故元 後裔의 耽羅 移住』 (미간행).

102) 尹昌鉉, 『朝鮮氏族統譜』.

원'과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두 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적중초』에는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나오지 않는데 이는 『호적중초』 작성 시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으므로 그 구분이 모호해졌을 수도 있다. 『호적중초』에 大原이나 大完으로 기록된 것은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몇 성씨를 살펴보겠다.

① 姜氏: 제주도에서 발견된 『호적중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성씨로 금물로리, 하원리, 동성리, 대포리, 하모슬리에서 두루 기록이 보인다.

② 左氏: 원나라 天官侍郎 左亨蘇가 監牧官이 되어 탐라에 留居하여 현재 濟州 左氏의 시조가 되었다.¹⁰³⁾ 『호적중초』에는 금물로리, 동성리, 하모슬리에 佐氏가 보이므로 左氏와의 祖先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데 동명인 경우 大完을 본관으로 한다는 것은(이를테면 금물로리 『호적중초』에 보이는 書記 洪信孝의 외조인 書員 佐世好의 경우)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③ 徐氏: 동성리의 『호적중초』에 보인다.

④ 肖氏: 하모슬리의 『호적중초』에 보이며 肖有信의 본은 大國(大元)이라 하였다.¹⁰⁴⁾

『호적중초』에 보이는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시 기	성 씨	마 을	비 고	자료출처
가정12년(1807)- 동치9년(1870)	姜奉朱, 姜順完, 姜德朱 등 다수	今勿路里	本 大元	제주대정현사계 리 호 적 중 초 (I) ¹⁰⁵⁾
도광11년(1831)- 도광26년(1846)	佐世好	今勿路里	본 대원	동상
가정12년(1807)	姜渭興, 姜友安	河源里	본 대원	제주하원리호적

103) 『濟州左氏世譜』(제주 탐라도서관 소장).

104) 『濟州下幕瑟里戶籍中草』 I, II, II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중초 ¹⁰⁶⁾
도광24년(1844)- 동치3년(1864)	佐久太(允泰,中宅)	동성리	본 대원	보성리마을회관 소장(미간행) ¹⁰⁷⁾
도광8년(1828)- 동치6년(1867)	姜位奉(遇逢,渭奉),姜 取碩 등	동성리	본 대원	“
함풍5년(1855)- 동치9년(1870)	徐元用	동성리	본 대원	“
가정12년(1807)- 함풍11년(1861)	姜仁敏 처 姜召史 등	대포리 ¹⁰⁸⁾	본 대원	대포리마을회관 소장(미간행)
가정5년(1800)- 함풍11년(1861)	肖有信	하모슬리	본 大國	제주 하모슬리 호적중초 ¹⁰⁹⁾
	姜世弘, 姜碩?, 姜得根	“	본 대원	
	佐世好	“	본 대원	
	해당무	덕수리	해당무	제주대정현덕수 리호적중초 ¹¹⁰⁾
	해당무		해당무	倉川里戶口單 子 ¹¹¹⁾

이 <표 2>에 의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秦氏의 경우, 大元秦氏派譜가 있어¹¹²⁾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시조가 ‘중원인’이라 기록되어 있지 원나라에서 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 105)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탐라문화총서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106) 『濟州河源里戶籍中草』 I, II(1992년) III(1996), 서울대학교 규장각.
- 107) 보성리는 최근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됨.
- 108) 대포리는 법파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옛 명칭은 당포(唐浦)라 하며 법파사에서 출토된 주초석과 같은 주초석이 1990년 5월 대포해안에서 발견되었다. 탐라가 원나라에 예속되었을 때, 당포에서 공마를 수송하는데 貢馬路가 이용되었다고 한다. 공마로는 月羅峰 東側 柑山里 境에 있는데, 俗稱 ‘말길’이라고 한다[高炳五 朴用厚共編, 『元 大靜郡誌』 (박문출판사, 1968), p.93].
- 109) 『濟州下幕瑟里戶籍中草』 I, I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110) 『濟州德大靜縣修里戶籍中草』 I - IV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년).
- 111) 제주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호구단자는 기록이 간략하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 112) 진용상편, 『大元秦氏派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在日豊基秦氏會, 『豊基秦氏族譜』上中下(비매품, 1970). 진씨의 본관은 豊基, 晉州, 大元이 있다.

V. 맺는말

원나라는 지원 10년(1273) 삼별초의 항몽세력을 평정한 이후, 지원12년(1275) 탐라국초토사의 설치를 시작으로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 탐라(국군민)안무사, 탐라총관부, 탐라군민만호부(탐라군민총관부), 탐라국군민안무사, 탐라만호부를 설치하였다. 다루가치를 비롯한 일부 관원은 원나라에서 직접 파견해 오고 일부는 탐라인으로 충당되었다. 특히, 탐라(국군민)안무사의 경우 다루가치(정3품), 총관(종3품), 按撫司事(정5품), 司獄(종8품) 등의 관직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의 다루가치 중 가장 임직 기간이 길고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던 인물은 塔刺赤이다.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의 다루가치와 탐라(국군민)안무사의 다루가치를 지냈으며, 아들 노열니타도 탐라국군민안무사의 다루가치를 임직하였다. 탐라에서 다루가치직이 세습되는 것도 중국 내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탐라에 설치된 관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나라의 대 탐라통치는 중국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탐라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통치형태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대에 단행된 중국인의 탐라 이주를 관원, 주둔군, 목인, 유배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원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의 유형이나 형태도 중국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원대 통치자의 眼中에 탐라는 원대에 통치하에 들어온 서남지역의 운남과 비슷한 변원지역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들이 탐라로 이주하는 경로 등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룰 예정이다.

원나라의 약 90년에 걸친 탐라통치의 흔적을 찾고자 함에 가장 큰 어려움은 사료의 부족이다. 조선시대의 사료를 통해서 육지인의 눈으로 묘사한 제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국적인 요소는 원나라

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중국인이 탐라로 이주한 이후 중국 측의 자료에서 이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제주도에 족보도 거의 남아있지 않지 않으므로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朝鮮氏族通譜』, 『호적중초』를 이용하여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원나라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원나라 때 탐라가 중요한 지역이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들이 다 몽골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漢人(南人), 色目人 등 다양한 종족이 있었을 것이나, 다루가치나 목축관련 종사자 등은 대부분 몽골족이어서 제주도에 특히 말과 관련되는 몽골 용어가 많이 남아 있다.



(中文提要)

元朝對耽羅的統治與人口遷徙的歷史遺跡

裴 淑 姬

元朝統治中國時期，耽羅處於蒙古帝國的統治之下，所以在那裡居住着許多中國的官員、牧人、流放人和軍人。早在元世祖爲了征服南宋和日本，耽羅是蒙元帝國最爲關注的地方。

元朝于至元十年(1273)平定三別抄的抗蒙勢力以後，從至元十二年(1275)設立耽羅國招討司開始，陸續設立了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耽羅按撫使、耽羅軍民萬戶府、耽羅國軍民安撫司、耽羅萬戶府。包括達魯花赤在內的官員一部分直接由元朝派遣，一部分則由耽羅人担当。特別是耽羅國軍民安撫司的達魯花赤(正3品)、總管(從3品)、按撫司事(正5品)、司獄(從8品)等官職有實証記載。元朝對耽羅的統治和中國內地的邊遠地區統治行政系統非常相似，這也是考慮到耽羅的地域特点的緣故。

在耽羅擔任過達魯花赤的人物中任期最長，權力最大的就是塔刺赤，他是曾任耽羅招討司招討使的失里伯的兒子，也是最后一任達魯花赤奴列你他的父親。失里伯雖然被任命爲招討使，但是沒有到耽羅赴任。他的兒子塔刺赤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和耽羅(國軍民)安撫司的達魯花赤、孫子奴列你他也在耽羅擔任了耽羅國軍民安撫司達魯花赤(正3品)。在耽羅達魯花赤是世襲制的，這和中國內地一樣。

塔刺赤在耽羅任達魯花赤的時候，時逢元朝兩次東征日本，失敗後也必要繼續準備，所以忽必烈任命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長期計劃完成這些任務。塔刺赤的家們從先祖開始爲元朝對外戰爭所重用，可以確知塔刺赤在耽羅的時候享有相當高的權力。成宗大德四年設置耽羅總管府，第二年改名爲

耽羅軍民萬戶府, 在『元史』裡記載名為耽羅軍民總管府, 屬於征東行省. 所以高麗人朴景亮也耽任過達魯花赤. 此外, 耽羅歸還高麗後, 元朝也派來過達魯花赤和其他官員.

因為耽羅是元朝皇室牧場其中之一, 所以有部分牧人過來放牧. 這部分人叫哈赤. 雖然不知道元朝的皇室牧場飼養的牛馬向元朝進供了多少, 但是耽羅持續進貢牛肉、酥油、毛皮、牛肺、鞍具等, 這也達到了元朝在耽羅開辟牧場的目的. 耽羅是元朝的軍隊駐扎地, 在鎮壓完三別抄后, 又駐扎了征服日本的蒙漢軍. 元世祖死后, 每當日本發動侵略戰爭, 耽羅總是成為第一戰場. 這和元朝的海防有着密切的關係, 所以元朝非常重視耽羅的海防. 耽羅當初是元朝犯人流放地, 開始的時候一次性流放了几十名盜賊和罪人, 他們可能被用于后來的對日戰爭. 此后也陸續流放了地位比較高的人, 如魏王阿木哥、徽政院使羅源、孛蘭奚大王等.

元朝統治耽羅約90年的時間, 尋找其統治的痕迹最難的就是資料嚴重不足. 從朝鮮時期的史料來看, 陸地人眼裡濟州島的異國因素是跟元朝的統治密切相關的. 中國人移居以后, 在中國國內找不到資料記載, 濟州島的族譜也基本上沒有保留下來. 在這種情況下, 我們只能通過『新增東國輿地勝覽』、『東史綱目』、『朝鮮氏族通譜』、『戶籍中草』等材料來研究, 結果發現, 元朝時期中國人以各種各樣的方式移居到濟州島. 自‘大元’有趙、李、石、肖、姜、鄭、張、宋、江、周、秦十個姓氏, 來自‘雲南’的有梁、安、姜、對四個姓氏. 雖然來自‘大元’的數量不多, 但是還是占了很大的比重, 還有一點就是耽羅在元朝是很重要的一個地區, 曾有多種類型的口口移居, 移居的元人中這些移民不是都蒙古族, 其中也有漢人、南人和色目人. 但特別是達魯花赤、牧人等大部分是蒙古族, 所以濟州島和馬有關的用語也留下不少.

주제어: 원나라, 탐라, 다루가치, 주둔군, 유배, 이주, 흔적, ‘대원’.

關鍵詞: 元朝, 耽羅, 達魯花赤, 駐屯軍, 流放, 移住, 痕迹, ‘大元’.

Keywords: Yuan Dynasty, Danluo, Darughachi, garrison, immigration, heritage, ‘dayuan’

(원고접수: 2012년 1월 15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2월 16일, 수정원고 접수: 2월 23일, 게재 확정: 12월 24일)

K C I